

4월 선교지 소식

Bwana asifiwe (주님을 찬양 합니다)

1년중 가장 비가 많이 내려야 할 때 인데 이곳은 아직 예년에 비하여 필요한 만큼의 비가 흡족히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하늘을 신뢰하는 농민들의 강한 마음을 바라보면서 나도 사역 중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하늘 아버지를 의지 하면서 이겨야겠다는 강한 도전을 받습니다.

4월 선교지 소식을 나눕니다.

■ 탕가 신학교 소식.

신학교는 지금 방학 중이며 5월 6일 2번째 텀(term)이 시작 됩니다. 아직까지 특이한 소식들이 없는 것 보니 모두 사역지로 돌아가 교회들을 잘 돌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남은 방학 기간동안 모두 승리하고 돌아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이번 방학동안에는 식당과 여자 기숙사에 TV를 설치 했습니다. TV이 설치는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벤엘교회와 우리 동부 아프리카 선교회의 도움으로 설치 했습니다. 방학후 돌아와 기뻐 할 학생들의 모습을 미리 바라보며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리빙 스톤 중학교 소식.

1) 학생들 소식.

신학교와 다른 학사 일정으로 계속 학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월에(5월 초까지)는 여러가지 공휴일들이 많아 사역자들 모두가 걱정 스러울 정도로 휴일들을 보냈습니다. 기숙사 학교이다보니 지루한 휴일을 보내지 않도록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 했습니다.학부모 방문의 날, 운동회, 잠기자랑, 미니 축구경기, 세족식, 시 쓰기 행사 등을 진행 하였습니다. 부활 주일에는 이들이 좋아하는 닭 과 감자 튀김(Kuku na Chipsi -이곳 표현입니다)으로 주님 부활 하심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행사때 마다 수고하는 교사들과 영혼 선교사의 수고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제 1달 후로 다가온 4학년들의 국가 모의 고사와 학기 말 시험 준비를 위해서 모두가 허리 띠를 동여맬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2) 건축 소식.

건축비 관계로 지난 2개월 동안 큰 공사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중단된 고등학교 기숙사 공사가 다시 시작 될 수 있길 소망 하고 있습니다.

3) 시계 및 나침반 설치.

학교 정문에 건립한 기념물에 한국에서 제작 해온 대형 시계(진품 - 태양열 사용)와 나침반(모형)을 설치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계와 나침반 제작을 위해서 많은 물질로 동참해 주신 서울의 신성장로교회 목사님과 교우
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지역교회 건축 소식.

Komsala(타 지역 선교사님 부탁으로 공사를 돕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과 Misozwe교회 유지
원 공사(서울 신성 장로교회 후원)가 잘 진행되어 이제 마지막 단계를 진행 하고 있습니
다. 위의 2곳 공사는 리빙 스톤 학교 공사가 잠시 쉬는 틈을 이용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까지 잘 완공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 신학교 동문 교회 방문.

저희 사역지에서 그리 먼 곳은 아니지만 높은 산속에서 사역하는 탕가 신학교 동문이 사역
하는 교회를 방문 했습니다.

가파른 산을 오르는 여행이라 방문후 온 몸이 쭈시는 휴휴증도 경험 했습니다.

그렇게 높고 깊은 산속에 100여명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산 속에 거주
하는 인구는 약 1천명 이라고 합니다. 그 곳 전도자의 이름은 Steven Mhina 이며 앞으로 계
속해서 그 지역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짧은 간증
을 하였습니다.

아주 작은 흙으로 된 그의 움막집이 산을 내려온 후로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곳에
안정적인 예배 처소가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 박선교사 부부 미국방문 계획.

지난 3년 동안 방문하지 못하여 죄송 했는데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마주 하면서 잠시나마 함
께 교제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방문 기간은 5월 22일 출국하여 6월 9일 사역지로 돌아
오게 됩니다.

짧은 기간 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교회들을 방문 할 수 있도록 연결 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초청해 주신 교회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 유익된 기간이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 변하고있는 사역지 상황.

모든 면에 있어서 탄자니아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1년 여년전에 들어선 새
정부 이후로 안정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미비했던 국가 운영 체계도 많이 보강이 된 듯 변화
의 모습들이 육안으로 들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치솟는 물가(예: 주식인 옥수수 가루 1킬로가 Tsh.2,000. 전에는 가장 저
렴 했으나 이제는 가장 비싼 쌀 값보다 더 고가의 음식물이 되었음)와 지나치리 만큼 심한
이민국과 노동국의 간섭 등은 신경을 많이 쓰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지혜와 인내함

으로 모든 상황에 잘 대처해 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후원하시는 분들과 교회들께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셔서 평강의 날 되시길 기도 합니다.

2017년 4월 28일

탄자니아에서 박윤석 선교사 가정 올림.